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_ 이용악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는 선달 그믐
 밤이 / 알곶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찢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아롱범: 표범. *우라지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마우재 말: 러시아 말.

*귀성스럽다: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EBS의 시선

이 시는 시베리아의 이국땅을 떠돌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하에 해체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노래하고 있다. ‘우라지오’는 화자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말로만 들던 이국의 도시이다. 당시 그곳은 절박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탈출구의 하나였다. 그곳에도 추위와 외로움이 있지만 화자는 그러한 현실과 당당히 맞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도 화자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의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지만 바다가 두껍게 얼어붙어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는 현실을 드러내며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 1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를 찾은 ‘나’
- 2연: 고달픈 현실에 의연히 대처하며 후회 없이 살아온 삶
- 3연: 우라지오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어린 시절의 밤
- 4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움
- 5, 6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 주제 :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① 동일한 시구인 ‘때꺼정’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 ②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에서 음성 상징어 ‘깜박’을 통해 대상(‘등불’)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활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멧비둘기’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상반된 존재이자 화자에게 소망을 환기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 ④ ‘등대’는 한곳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알곶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드는 ‘밤’은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⑥ ‘부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표출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⑦ ‘하얀 눈’은 화자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⑧ ‘날고 싶어’는 멧비둘기처럼 화자도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을 담고 있는 구절이므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⑨ ‘눈보라에 얼어붙는 선달 그믐’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고향에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화자가 현재의 삶에서 겪는 힘겨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⑩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는 화자가 떠올린 유년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⑪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는 것은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터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띄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귀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주제 방향성 :

【THE - 깊은 독해】

삽살개 짚는 소리

→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이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기능할 수도 있다.

눈보라에 얼어붙는 선달 그림

→ 몹시 추운 겨울이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때 '눈보라에 얼어붙는'은 흔히 혹독한 현실을 상징한다. 겨울의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압축한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선달 그림'은 음력 12월 31일을 뜻한다.

밤이 / 알곶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 밤에 알곶에도 어떤 감정(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때 '손'은 밤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 화자는 술을 마시고,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서 이 부두로 온 상황이다. 밤이 되어 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렬하게 느끼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불타는 소원'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 부두'는 제목인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를 가리키며, 화자의 현재 위치이자 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공간이다.

▶1연: 부두를 찾아온 '나'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 이때 '걸어온 길가'는 화자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 '짙레 한 송이'는 삶의 보람이나 행복 혹은 아름다운 존재를 뜻한다. 즉, 이 행은 화자가 지금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나의 아롱범은 /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다. '나의 아롱범'은 화자 자신을 비유한 말로, 굳은 의지를 지닌 존재, 현실에 맞서는 화자의 치열한 삶의 표상을 뜻한다.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즉, 화자는 자신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 그동안 고난을 겪으며 감당해 온 무거운 삶의 무게를 무겁지 않다고 여기는 상황이다. 이때 '하얀 눈'은 고난과 시련, 삶의 무게를 상징하고,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라는 것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2연: 후회없는 인생길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시작된다.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는 우라지오(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상황이다. 이때 '우라지오'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동경의 대상이다.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 때꺼정 : 때까지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 깊은 밤까지 어머니가 화자에게 러시아 말을 들려준 상황이다.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다. '깜빡'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였으며, '등불이 눈'을 감는다는 활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때꺼정'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3연: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회상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 어머니의 따스한 정과 사랑을 회상하는 상황이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뜰하게 기억했다는 뜻이다.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 화자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겨 있는 모습이 제법 구수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기억'은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의 의미이며, '새'는 어린 시절의 화자를 비유한 말이다. (혹은 '어린 기억의 새'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마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 새가 날개를 털고 날아가듯이, 마음속에 회상을 펼쳐 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새가 날개를 털고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하여,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 나타난다.

▶4연: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회상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온 구절이다. 현실은 우라지오의 항구가 멀어서 배가 드나들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상황은 절망적 현실을 상징한다.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 부두에 조용하고 외롭게 선 화자는 자신이 멧비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멧비둘기처럼 날고 싶다고 하고 있다. 날아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때 '멧비둘기'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화자의 부러움의 대상이자 화자의 소망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날고 싶어'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 화자의 소망('불타는 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머리에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그곳'은 아마 화자의 고향일 것이다.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 하지만, 배가 드나들 수 없어서 화자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얼음이 두텁다'는 표현은 절망적 현실을 상징한다.

▶5연: 절망적 현실 상황

등대와 나와

→ '등대와 나'는 그 자리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둘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시된다. 즉, 이때 '등대'는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대상이다.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뜰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 밤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이 끝없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때 '알뜰한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므로 '알뜰'하다고 한 것이다. 이는 두꺼운 '얼음'과 대비된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포기할 수도 없는 화자의 절망적인 처지를 나타낸 말이다.

▶6연: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곁으로 드러나 있음
[이국땅에서 외롭게 사는 이]
- 상황 : 두껍게 얼어버려 배 한 척 드나들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함
[고향이 그리워 찾은 우라지오 근처 항구에서 오도가도 못함]
- 정서·태도 : 회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절망, 간절함

[연 관 - 기 출 문 제]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㉔ 쌔쌔개 짚는 소리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밤이 /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㉕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㉖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아롱범 : 표범.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나)

내 유년 시절 ㉗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

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거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㉘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폴폴 수십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 판화1」-

(다)

남산(南山)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가단 말고

난 후(亂後) 도끼가 그대로 날랴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㉙ 제비 나니

적객(謫客)의 회포는 무슨 일로 그지없어

저 제비 나는 걸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적객(謫客)에 벗이 없어 빈 들보에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작고

어즈버 내 품은 시름은 너보다도 많노라

㉚ 인간(人間)에 유정(有情)한 벗은 명월(明月) 밖에 또 있는가

천리(千里)를 머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설월(雪月)의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원 속에 잤었나니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을까 하노라

- 이신의, 「단가(短歌)」-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향토적 정감이 풍부한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물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④ (가)~(다)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2. (가)의 시어와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을 ‘아롱범’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머니의 입김’은 화자의 추억과 연결되어 포근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③ 화자의 처지를 등대와 연결하여 ‘가도오도’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슴푸레 그리어진’은 화자의 추억이 희미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얼음이 두껍다’는 화자가 지닌 신념의 강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년기를 다룬 기형도의 시에서 아버지는 늘 부재해 있다. 현실의 울타리로서의 부성의 부재는 불안, 공포의 정서로 연결된다. 어머니는 모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부성의 부재, 불안정한 모성은 결국 기형도의 작품에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 ① ‘무서워요’는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머니조차 무서워요’에서 불안정한 모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인 바람은 화자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상징한다.
- ④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쓸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상실된 부성이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 ‘사위어가는 호롱불’은 죽음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소망을, ㉡은 화자의 시름을 환기한다.
- ② ㉠은 화자의 과거를, ㉡은 화자의 현재를 상징한다.
- ③ ㉠과 ㉡은 모두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한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5.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솔’, ‘명월’, ‘매화’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은 관습적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선비들은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었다. (다)는 작가가 인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다 함 경도로 유배된 상황에서 지어졌는데, 이 시의 자연물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① ‘솔’은 남산에 있다 베어진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를 간 작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
- ② ‘솔’은 ‘우로’가 깊어질 때 다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명월’은 화자를 ‘천리를 머다 아녀 따라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벗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
- ④ ‘매화’는 여원 모습으로 꽃을 피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유배 생활 중 작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⑤ ‘매화’에는 ‘향기’가 깊이 배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간직하고 있는 지조를 나타내는 것 같아.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유사한 구조의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 : 대립적 시어를 병치하여 상황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 :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삽살개 짚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 밝이 / 알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B]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 밝이면

울 어머니 /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C]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아롱범 : 표범.

* 우라지오 :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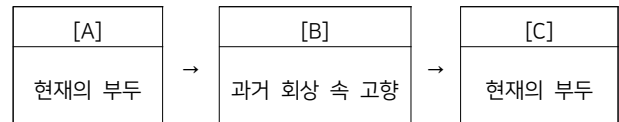
* 귀성스럽다 :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7. 밑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화를 통해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8. <보기>는 밑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 이 작품은 이국땅을 떠도는 화자가 블라디보스톡이 가까운 항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항구에서 화자는 후회 없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기 힘든 현실을 인식하며 시상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시의 짜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상을 말해 볼까요?



- ① [A]의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를 통해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 ② [B]의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을 통해 어린 시절 화자에게 우라지오는 동경의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 ③ [C]의 '얼음이 두껍다'와 '가도오도 못할'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인식함을 추측할 수 있어요.
- ④ [A]의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C]의 '날고 싶어 날고 싶어'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어요.
- ⑤ [C]의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를 통해 [B]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는 시간, ㉡은 정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과거를 성찰하게 하는 시간, ㉡은 가슴 아픈 과거를 잊게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현재 화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시간, ㉡은 과거 속 화자의 기대가 높았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 ㉡은 모두 화자의 심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 ㉡은 모두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삽살개 짖는 소리

㉠ 눈포래*에 얼어붙은 선달그믐

밤이 / 얇קות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주셨지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도*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꺾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눈포래: '눈보라'의 방언.

*아롱범: 표범.

*우라지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마우재 말: 러시아 말.

*모도: '모두'의 옛말.

*살뜰히: 일이나 살림을 매우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하여 빈틈이 없이.

*귀성스럽다: 제법 엇구수한데가 있다.

*거사리다: 긴 것을 힘 있게 빙빙 돌려서 포개어지게 하다.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짓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돈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月暈)」-

* 월훈: 달무리.

10.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고 싶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타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우라지오의 바다'에 '얼음'이 두꺼워서 '우라지오'에 가지는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에서 의인화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과거에는 고향에서 '우라지오'를 지향했지만, 현재에는 '우라지오'에서 고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 ⑤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라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시에서 시간을 표현하거나 알 수 있게 하는 시어는 화자나 시적 대상의 상황을 짐작하거나 이해하게 합니다. (가)와 (나)에서 시간과 관련된 시어를 통해 시의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 ① ㉠에서 ‘얼어붙은 선달그믐’은 겨울의 계절감과 어우러져 화자의 힘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② ㉠에서 ‘밤’은 화자가 가족과 함께했던 과거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밤’은 현재의 화자가 부두에서 고향에 대한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에서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과 ‘불을 켜지 요’는 순식간에 해가 지고 불빛이 켜지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⑤ ㉡에서 ‘기인 밤’은 ‘외딴집 노인’이 홀로 깨어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2.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라도 ~는지’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눈 내리는 풍경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갱(坑) 속 같은 마을’에 있는 ‘외딴집’의 ‘창문’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마지막 연에서 서술어를 생략하고 ‘월훈’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 등을 나열하여 마을이 외진 곳에 있음을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를 화자가 직접 바라보며 온기를 떠올리는 것에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알 수 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삽살개 짖는 소리 / 눈포래에 얼어붙는 선달그믐
 밤이 /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 걸어온 길가에 찢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 자옥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주셨지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 거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등대와 나와 /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꺾인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 아롱범: 표범.

* 우라지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 마우재 말: 러시아 사람의 말.

(나)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참새 떼 왓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
 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굶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
 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㉞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

1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공간의 분위기를 생생히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나)는 역설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향(離鄉)을 한 사람들에게 고향은 평안한 안식처이자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곳으로, 귀향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절망감은 더 커지게 된다. (가), (나) 모두 고향을 떠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가)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 이국땅을 떠돌면서 냉혹한 현실에 맞서며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고향이 더 그립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절망한다. (나)의 화자는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고향을 떠났고, 과거의 모습을 상실한 고향으로 인해 절망한다.

- ① (가)의 '나의 아롱범은 / 자옥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에는 냉혹한 현실에 맞서며 살아왔던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당당함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는 것과 어머니가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주'시는 것에는 평안한 안식처이자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고향에서의 삶이 나타나 있군.
- ③ (나)의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와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향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 ④ (가)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와 (나)의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에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이향인의 간절함이 형상화되어 있군.
- ⑤ (가)의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에는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나)의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에는 고향을 잃은 절망감이 표출되어 있군.

15. ㉞~㉟의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에서 '찢레 한 송이'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이다.
- ② ㉟에서 '작은 날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비유한 것이다.
- ③ ㉞에서 '얼음이 두텁다'는 것은 귀향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④ ㉞에서 '대숲 마을'은 화자가 떠나온 고향을 나타낸 것이다.
- ⑤ ㉞에서 '짜락눈'은 고향을 떠날 때의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①

- ① (가)의 화자는 ‘어머니’가 ‘누이’에게 ‘마우재 말’을 들려 주셨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년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내던 동지의 밤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불안과 공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즉 (가)와 (나) 두 작품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SCAN]

- ③ (다)의 ‘남산(南山)의 많던 솔이 어디로 가단 말고 / 난 후(亂後) 도끼가 그대도록 날랜시고’에서는 화자를 ‘솔’에 빗대고 있으며, ‘난 후’에 인목대비 사건으로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한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정답 SCAN] ⑤

- ⑤ 5연에서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는 표현은 화자가 놓인 처지를 드러내는 구절이다. 화자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화자가 지닌 신념과는 무관한 구절이다.

3.

[정답 SCAN] ④

- ④ 화자의 어머니가 ‘종잇장 같은 내 배’ 즉 화자의 배를 끌어내리는 행위는 치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어머니의 모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듯 어머니의 모성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부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성의 부재는 작품 전반에 그대로 유지된다.

4.

[정답 SCAN] ①

- ① ㉠은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서 떠올린 이미지이다. 뗏비둘기는 새처럼 날아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환기한다. ㉡은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서 느끼는 마음 즉 시름을 환기한다. ㉢은 유배지에 묶여 있는 화자와는 달리 하늘을 날고 있다. 그러한 제비를 보며 화자는 유배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한숨 겨워한다.

[오답 SCAN]

- ④ ㉠과 ㉡이 화자에게 긍정적 소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하지는 않는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쓸쓸한 마음은 정서이지 가치가 아니다.

5.

[정답 SCAN] ②

- ② ‘우로’는 남산에 있다 사라진 ‘솔’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남산에 많던 솔이 사라진 것을 중장의 ‘도끼가 그대도록 날랜시고’와 연관 지어 보면, 그것이 도끼에 베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솔을 다시 나타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로는, 솔을 남산에 있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이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어 보면 유배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우로는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SCAN] ③

- ③ ㉢에서는 ‘바람’이라는 무생물을 의지를 지닌 생물처럼 ‘문풍지를 더듬’는다고 표현하여, 화자가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였던 ‘동지의 밤’의 분위기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있는 시어는 찾을 수 없다.

[오답 SCAN]

- ① ‘삼살개’가 짓는 청각적 이미지와 ‘눈포래에 얼어붙’는다고 하는 시각 또는 촉각적 이미지가 ‘섣달 그믐’의 분위기를 잘 그려주고 있다.
- ④ ‘은빛 금속’이 갖는 차가운 느낌 때문에 ‘서리’가 갖는 의미가 선명해졌다.

7.

[정답 SCAN] ⑤

- 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자 또는 독자가 이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SCAN]

- ① ‘밤이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에 추상적 대상인 ‘밤’이 손을 흔든다고 구체화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②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에서 ‘날고 싶어 날고 싶어’를 반복하여 고향에 가고 싶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③ 이 시는 ‘우라지오’라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그리움의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삽살개 짚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이라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8.

[정답 SCAN] ④

- ④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 시구라 할 수 있다.

[오답 SCAN]

- ① <보기>의 내용 가운데 ‘화자는 후회 없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설명에 해당하는 시의 구절은 ‘걸어온 길가에 찢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이다. 여기서 ‘뉘우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왔다는 것을 드러낸다.
- ②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에 어머니로부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 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 꺼정’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우라지오’라는 곳을 동경했음을 보여준다.
- ③ 이 시의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꺼워서 ‘가도오도 못’하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인식함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B]는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과거 회상의 내용이다. 그리고 [C]의 앞부분에서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라는 표현에는 [B]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9.

[정답 SCAN] ③

- ③ ㉠은 이국땅에서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로 온다. 따라서 ㉠은 현재 화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 어머니에게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므로 과거 속 화자의 기대가 높았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SCAN]

- ① ㉠에는 자연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에는 화자의 과거를 성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은 추억 속의 시간이므로 가슴 아픈 과거를 잊게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
- ④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 화자의 심적 갈등을 유발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은 추억 속의 시간이므로 화자의 심적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시간이므로, 화자가 ㉡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은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시간이므로 화자가 ㉠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없다.

10.

[정답 SCAN] ④

- ④ 화자는 과거에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어 했다. 이를 통해 화자가 과거에 고향에서 ‘우라지오’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날고 싶어 ~ 그리어진 그곳’에서 화자는 현재 ‘우라지오’에 있지만, 고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황이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SCAN]

- ① ‘날고 싶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타향’이 아니라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우라지오의 바다’에 ‘얼음’이 두꺼운 현재 상황을 표현하여 ‘우라지오’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도오도 못할’ 상황에 화자가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꺼정’은 의인화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에 고향에서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음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관련이 없다.
- ⑤ ‘어린 기억의 새’에게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라고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새가 날개를 털는 것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1.

[정답 SCAN] ③

- ③ ㉔에서 ‘밤’은 화자가 계속 고향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바다의 얼음 때문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런 점에서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꿈(화자가 고향에 가는 것)을 갖게 한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화자는 고향에 대한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밤에 현재의 화자가 부두에서 고향에 대한 단절감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시간을 표현한 시어는 화자의 처지를 짐작하거나 이해하게 한다고 했는데, ‘얼어붙은 선달그믐’은 ‘눈포래’라는 겨울의 계절감과 어우러져 화자가 힘든 공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② 시간을 표현한 시어는 화자의 처지를 짐작하거나 이해하게 한다고 했는데, 화자는 현재 ‘밤’에 어머니, 누이와 함께했던 과거의 밤을 떠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했던 과거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간을 표현한 시어는 화자나 시적 대상의 처지를 짐작하거나 이해하게 한다고 했는데, ‘꼴깍’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루꼬리 해가 지면’은 순식간에 해가 지는 상황을 의미하고 ‘불을 켜지요’는 이어 불빛이 켜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⑤ ‘밤’에 ‘외딴집 노인’이 홀로 깨어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고 있는 상황을 통해 화자가 밤을 길다고 표현한 이유를 알 수 있다.

12.

[정답 SCAN] ⑤

- ⑤ (나)에서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를 화자가 직접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온기를 떠올리는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노인이다. 노인이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것을 통해 화자는 노인이 온기에 대해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SCAN]

- ①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흠날리는지’에서 ‘~이라도 ~는지’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눈 내리는 풍경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갯 속 같은 마을에 있는 외딴집 창문을 모과 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마지막 연에서 ‘월훈’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④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 등을 나열하여 산골 마을이 외진 곳에 있음을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3.

[정답 SCAN] ③

- ③ (가)에서는 ‘눈포래’, ‘선달그믐’, ‘얼음’, (나)에서는 ‘짜락눈’ ‘눈 위’ 등 겨울과 관련한 시어를 사용해 화자의 절망적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에서는 ‘자옥자옥’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공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도 ‘후두둑’, ‘쿵쿵’처럼 공간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였다.
- ② (가)에서는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불러일으킨다. (나)에서는 명사가 아니라 ‘남기며’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유사한 시구나 시행이 쓰이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 ⑤ (나)에서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는 모순 형용사로 역설법에 해당하지만, (가)에는 반어법이 쓰이지 않았다.

14.

[정답 SCAN] ④

- ④ (가)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는 술김에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두에 왔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작디작은 수레 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는 막막한 심정으로 고향을 떠나올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일 뿐,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이향인의 간절함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가)에서 ‘나의 아롱범’은 냉혹한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화자를 표상하는 존재로, ‘늪우칠 줄 모른다’는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② (가)에서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는 화자의 모습과 어머니가 화자에게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주’시는 모습은 평안한 안식처이자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과거 고향에서의 삶을 묘사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추수가 끝난 들판을 달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나,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는 고향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⑤ (가)의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화자의 절망감을, (나)의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후 고향을 상실했다는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15.

[정답 SCAN] ③

- ③ ㉠에서 ‘얼음이 두텁다’는 것은 바다가 얼어붙어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귀향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에서 ‘찔레 한 송이’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화자에게 위안이 될 만한 존재를 비유한 것이다.
- ② ㉢에서 ‘작은 날개’를 털라는 것은 ‘새’에 빗대어 마음껏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에서 ‘대숲 마을’은 지금은 없는 마음의 고향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떠나온 고향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에서 ‘짜락눈’은 고향을 떠날 때의 화자의 막막함과 서글픈 심정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